

PC-I-11. 하악 대구치부에서 Branemark TiUnite® implant를 이용한 단일 지아수복의 후향적 연구

오경준*, 새경준, 정익원, 김장성, 최성호, 조규성, 김종관, 새중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치주조직재생연구소

Background

하악 제1,2대구치 부위를 대체하는 Brånemark TiUnite® 단일 임플란트의 누적생존률을 분석

Materials and methods

2001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111명의 환자, 112개의 임플란트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1-6년간의 기간동안 112개 임플란트중 4개가 실패하여 96.42%의 전체 누적생존률을 보였다. 아울러 식립위치, 직경, 길이, 골질에 따른 생존률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Result

1. 하악 제1대구치 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55개(55명)중 2개가 실패하였고,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식립된 임플란트는 57개(56명)중 2개가 실패하였으며, 생존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975)
2. 5.0mm 장폭경 임플란트는 96개중 3개가 실패하였고, 4.0mm 표준직경 임플란트는 16개중 1개가 실패하였으며, 생존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917)
3. 길이가 10.0mm 이상인 긴 임플란트는 103개중 4개가 실패하였고, 길이가 8.5mm이하인 짧은 임플란트는 9개 모두가 생존하였으며, 생존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738)
4. Type I, II 골질에 식립된 37개의 임플란트는 모두 생존하였고, Type III, IV 골질에 식립된 52개 임플란트는 4개가 실패하였으며, 생존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227)

Conclusion

이상의 결과를 통해, Brånemark TiUnite®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1-6년간 하악 대구치부 단일치아를 수복하였을때 높은 누적생존률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고, 하악 대구치부 단일치아 상실시 TiUnite® 임플란트를 이용하여 수복하는 것이 예지성 높은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앞으로, 방사선적 검사를 포함하는 장기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하며, 임플란트 표면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골유착을 위한 치유기간을 단축시키고, 불량한 골질에서도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